

우리사회 '정치 과잉' 현상 점검

■ 정치 관련 '개인적 관심'과 '국민적 관심' 평가

- _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높은 관심도 보여
- _ 2030세대, 자신보다 국민전체 관심 높다고 생각
- _ 4060세대, 자신과 국민전체 관심도 비슷하게 인식
- _ 진보층, 자신보다 국민전체 관심 낮다고 생각

■ 언론의 정치 관련 보도 평가

- _ 언론 정치 보도, '많이 보도하는 편'으로 생각
- _ 2030세대, '정치이슈'와 '대통령' 많이 보도한다 생각
- _ 60대이상, 언론보도에 가장 비판적
- _ 보수층 '정치 이슈', 진보층 '대통령' 보도 많다고 평가

■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생각

- _ 국회의원 선거, 개인적·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
- _ 총선 관심도, 60대이상과 은퇴.무직자 높아
- _ 총선 관심도, 서울 높고 PK 낮아
- _ 총선 투표 정당, '정했다' 36% vs '안정했다' 41%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8월 11일(금) ~ 8월 13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7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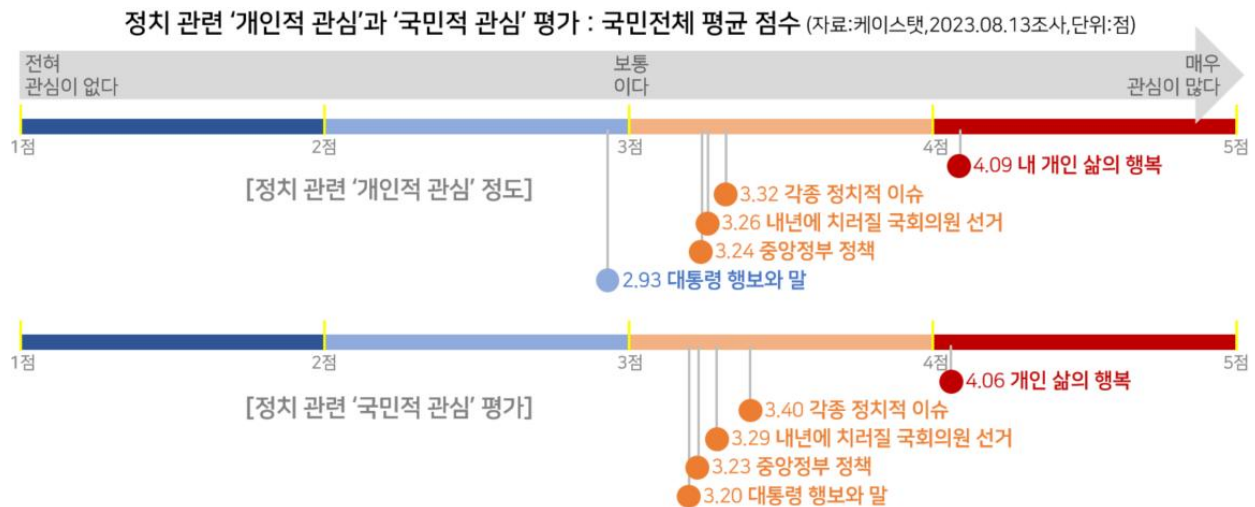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정치 관련 '개인적 관심'과 '국민적 관심' 평가

□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높은 관심도 보여

-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3점) 이상의 높은 관심도를 기록함
 -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라는 질문 후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1점에서 '매우 관심이 많다' 5점까지 응답토록 한 결과임
- '내 개인 삶의 행복'이 4.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가운데, 정치 관련 항목 중에서는 '각종 정치적 이슈'가 3.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은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3.26점), '중앙정부 정책'(3.24점), '대통령 행보와 말'(2.93점) 순으로 응답함
- 또한 국민 전체적인 정치 관심도를 질문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이 내 개인적 관심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 행보와 말'은 더 높은 관심도를 기록함
 - '대통령 행보와 말' : 내 개인 관심도 2.93점 → 국민적 관심도 3.20점
 - "그렇다면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같은 항목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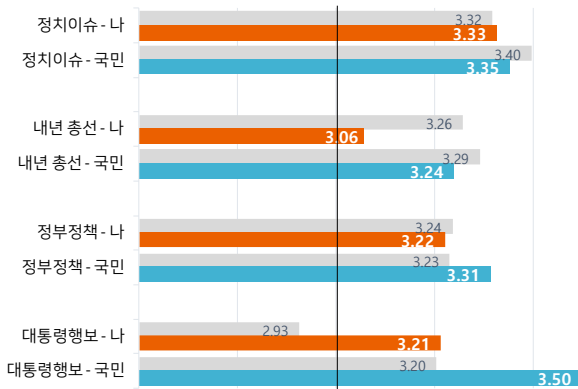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자신은 물론 국민 전체적으로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으로 인식함
 - : '각종 정치적 이슈', '내년 총선', '중앙정부 정책' 모두 '보통'(3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기록함
 - : 한편, '대통령 행보와 말'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편'(2.93점)이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 '관심이 많은 편'(3.20점)으로 생각함
- ☑ 특히 아직 8개월이 남은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3점) 이상을 기록한 점은 우리 국민들의 비교적 높은 정치 관심도를 잘 보여주는 지점임
 - : 2024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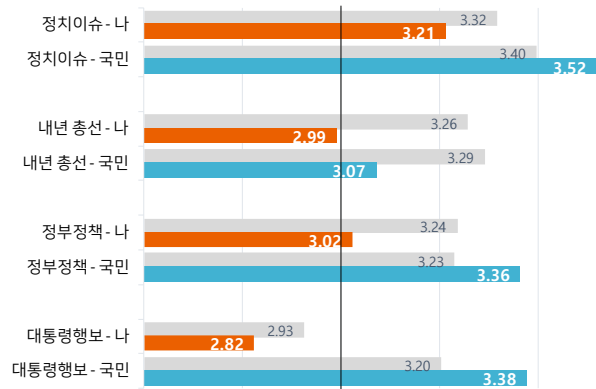
□ 2030세대, 자신보다 국민전체 관심 높다고 생각

- 정치 관심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통'(3점) 이상의 관심도를 기록한 가운데 여성보다 남성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 2030세대 중 남자 20대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여자 20대의 관심도가 가장 낮음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세로 검은 선은 '보통'(3점) 기준선임
- 다른 항목과 달리 '대통령 후보와 말'의 경우 남자 20대는 3.21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 비해, 다른 2030세대들은 3점 미만의 낮은 관심도를 보임
- 또한 자신보다 국민 전체적인 정치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자 20대에서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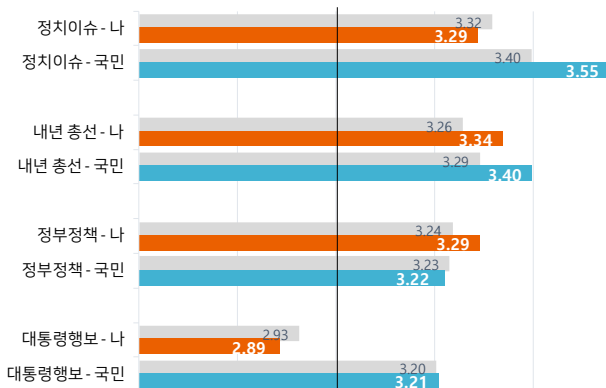
남자 18~20대, 정치 관심도 평점 (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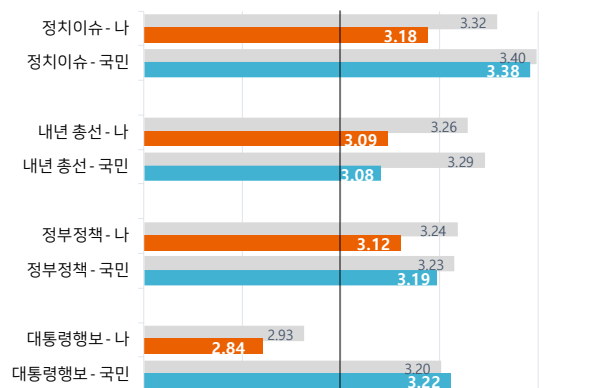
여자 18~20대, 정치 관심도 평점 (2023.08.13조사,단위:점)



남자 30대, 정치 관심도 평점 (2023.08.13조사,단위:점)



여자 30대, 정치 관심도 평점 (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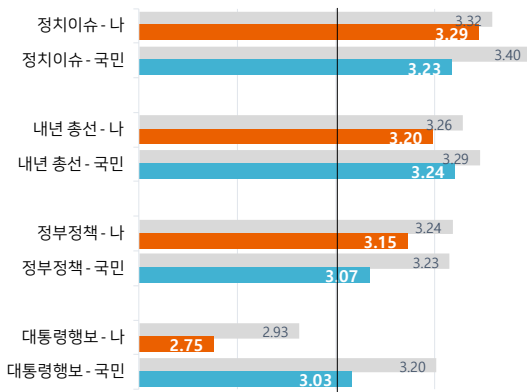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 모두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자신보다 국민 전체적인 관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함
 - :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자신보다 국민전체 관심도가 높음(남자 30대의 '정부정책'만 예외)
 - : 특히 '대통령 후보와 말'에 대해 자신은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국민들은 '관심이 많은 편'으로 인식하고, 격차도 큼
 - : 즉, 2030세대는 다른 국민들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 ☑ 한편, 남자 30대의 '내년 총선' 관심도가 다른 2030세대에 비해 높은 점이 주목됨
 - : 총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남자 30대는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를 넘나들 정도로 유동성이 강한 세대임
 - : 이러한 유동적인 모습은 총선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관심 속에 꼼꼼히 비교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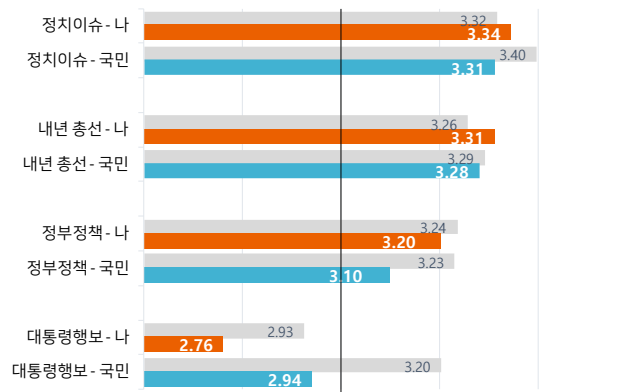
□ 4060세대, 자신과 국민전체 관심도 비슷하게 인식

- 4060세대 역시 전반적으로 '보통'(3점) 이상의 관심도를 기록한 가운데 60대이상의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회색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세로 검은 선은 '보통'(3점) 기준선임
- 다만, '대통령 행보와 말'의 경우 4050세대의 개인 관심도는 3점 미만인 데 비해 60대이상은 3.21점을 기록, 차이를 보임
- 또한 대체로 자신과 국민 전체적인 정치 관심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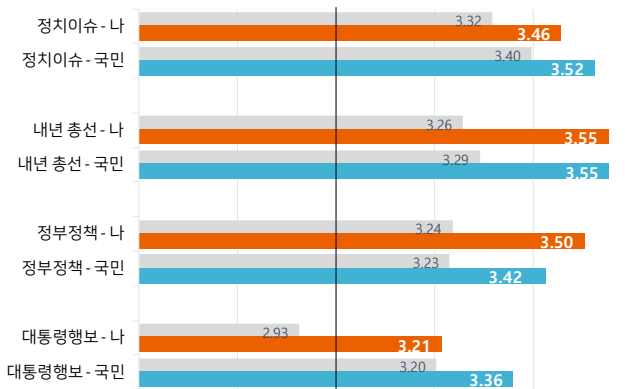
40대, 정치 관심도 평점 (2023.08.13조사,단위:점)



50대, 정치 관심도 평점 (2023.08.13조사,단위:점)



60대이상, 정치 관심도 평점 (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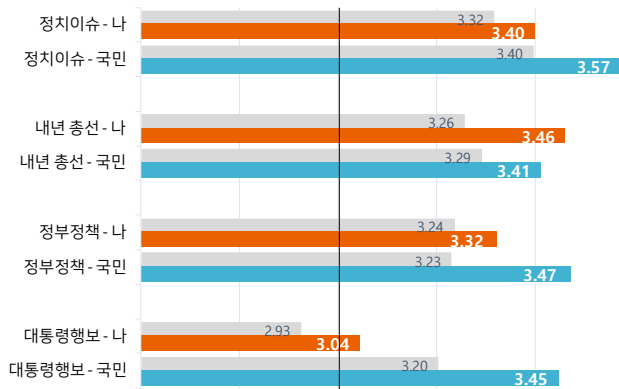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성/연령별 정치 관심도를 종합하면, 2030세대는 자신보다 국민전체의 관심이 높다고 생각하고, 4060세대는 자신과 국민전체 관심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함
 - : 이러한 인식 차이는 평소 2030세대는 정치 관련 대화를 꺼리고, 4060세대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 한편, 다른 항목과 달리 '대통령 행보와 말'의 경우, 모든 성/연령대에서 자신보다 국민전체 관심이 높다고 인식함
 - : 즉, 국민 개개인은 '대통령 행보와 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임
 - : 최근 한국 사회진단 시 이야기되는 '정치 과잉' 현상(정부 정책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협적으로 찬반 입장을 결정하는 현상)과 '대통령 행보'에 대한 과도한 국민 관심은 그 맥락이 맞닿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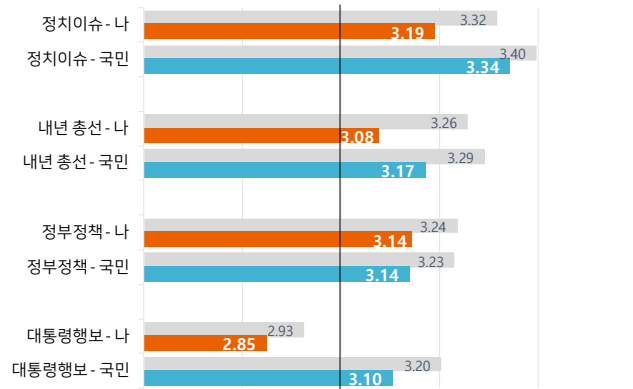
□ 진보층, 자신보다 국민전체 관심 낮다고 생각

- 이념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이념층이 '보통'(3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관심도를 기록한 가운데, 보수층과 중도층의 관심도가 높음
 - 아래 그림에서 옅은 회색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세로 검은 선은 '보통'(3점) 기준선임
- 다만, '대통령 행보와 말'의 경우 중도층과 진보층의 개인 관심도는 3점 미만을 기록함
 - 보수층은 3.04점으로 '보통'(3점)을 소폭 상회함
- 또한 대체적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은 자신보다 국민 전체적인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진보층은 자신보다 국민적 관심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차이를 보임
 - '대통령 행보와 말'의 경우 진보층도 예외적으로 국민전체 관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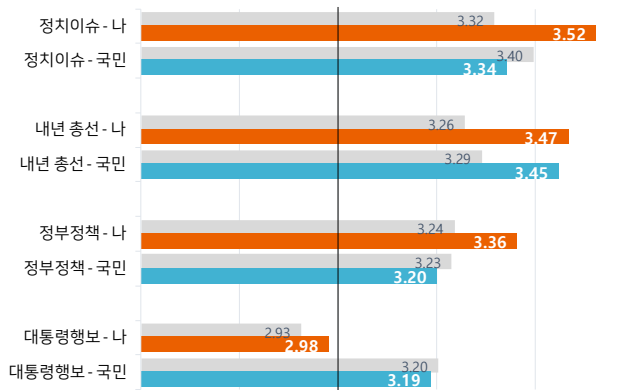
보수층, 정치 관심도 평점 (2023.08.13조사,단위:점)



중도층, 정치 관심도 평점 (2023.08.13조사,단위:점)



진보층, 정치 관심도 평점 (2023.08.13조사,단위:점)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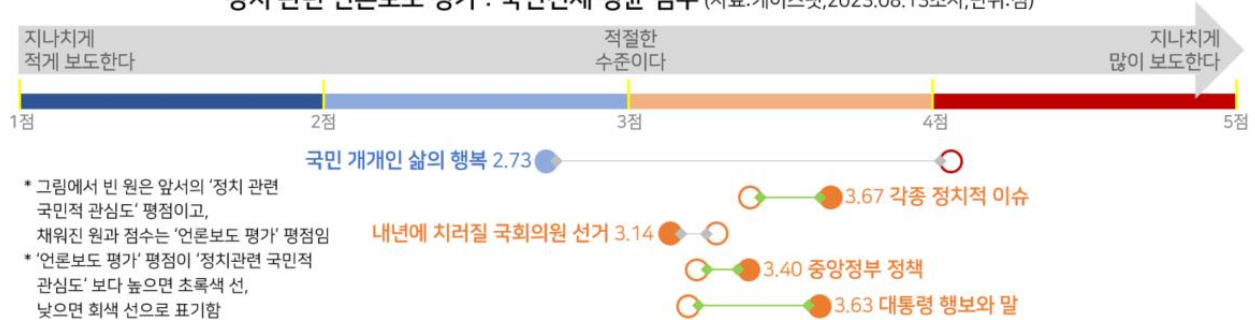
- ☑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양적으로 비교하면, 중도층보다 보수층과 진보층이 더 높음
 - :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보수층과 진보층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임
- ☑ 특징적인 점은 보수층과 중도층의 경우 자신보다 국민적 관심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진보층은 반대로 자신의 관심이 더 높다고 생각함
 - : 진보층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정치 관심도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언론의 정치 관련 보도 평가

언론 정치 보도, '많이 보도하는 편'으로 생각

- 우리 국민들은 언론의 정치 관련 보도가 '적절한 수준'(3점)을 넘어 '많이 보도하는 편'으로 생각함
 -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다음 각각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각 항목에 대해 '지나치게 적게 보도한다' 1점에서 '지나치게 많이 보도한다' 5점까지 응답토록 한 결과임
- '각종 정치적 이슈'가 3.6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통령 행보와 말'(3.63점), '중앙정부 정책'(3.40점),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3.14점) 순으로 나타남
 - '국민 개개인 삶의 행복' 관련 보도는 '적게 보도하는 편'에 해당하는 2.73점에 그침
- 이를 국민적 정치 관심도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국민 관심보다 언론 보도가 많다고 생각함
 -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만 국민적 정치 관심도 보다 소폭 낮음

정치 관련 언론보도 평가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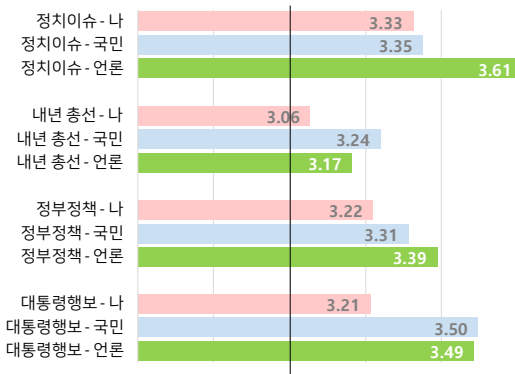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이 생각하는 언론은 '국민 개개인 삶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관련 보도에 주력하는 모습임
- ☑ 또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있는 정도를 뛰어넘어 '많이 보도하는 편'으로 생각함
 - : '각종 정치적 이슈'를 비롯해 '대통령 행보와 말', '중앙정부 정책' 등 모두 국민 정치관심도를 상회함
 - : 예외적으로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만 소폭 낮음
- ☑ 앞서 '정치 과잉'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 '대통령 행보와 말'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관심은, 언론의 많은 보도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임
 - :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 행보와 말'의 언론보도는 3.63점으로 높은 수준임
- ☑ 정치에 대한 국민 관심도와 언론보도 간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언론이 정치관련 보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인식함
 - : 향후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른바 '정치의 계절'을 맞아 언론의 정치 관련 보도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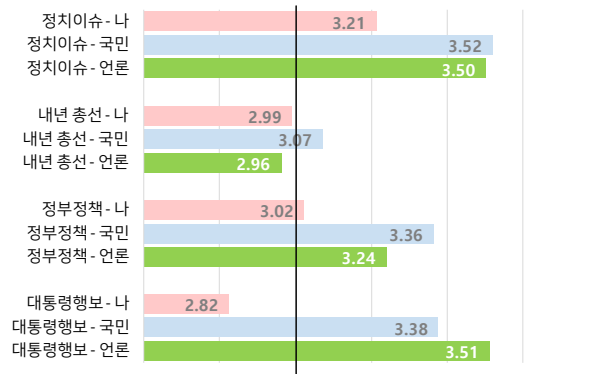
□ 2030세대, '정치이슈'와 '대통령' 많이 보도한다 생각

- 언론 보도수준에 대한 평가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3점)을 상회해 '많이 보도하는 편'으로 생각함
 - 남성층이 여성층에 비해 점수가 높아, '많이 이뤄지는 편'이라는 생각이 강함
 - 아래 그림에서 세로 검은 선은 '적절한 수준'(3점) 기준선임
- 특히 '정치 이슈'와 '대통령 행보와 말'을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평가함
- '내년 총선'의 경우 여성층은 3점 미만으로 '적게 보도하는 편'으로 생각하고, 남성층은 '많이 보도하는 편'으로 엇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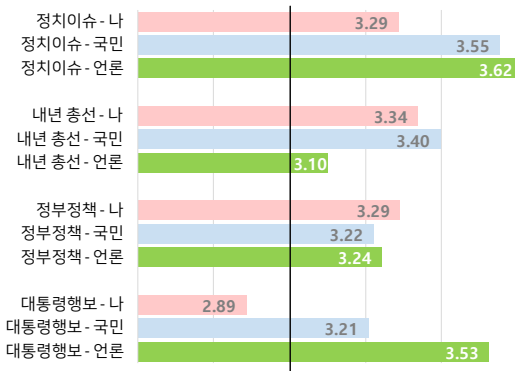
남자 18~20대, 언론보도 평가 (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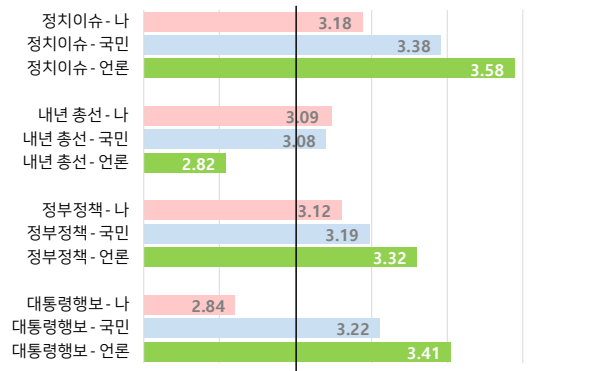
여자 18~20대, 언론보도 평가 (2023.08.13조사,단위:점)



남자 30대, 언론보도 평가 (2023.08.13조사,단위:점)



여자 30대, 언론보도 평가 (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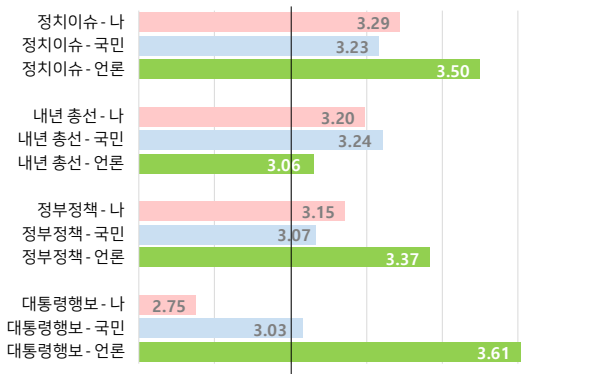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는 전반적으로 정치 관련 언론보도가 많다고 생각하며, 특히 '정치 이슈'와 '대통령 행보'가 많다고 평가함
 - : 정치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말하지만, 2030세대는 이러한 언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임
 - : 특히 '대통령 행보와 말'의 경우, 개인 관심도와 비교할 때 그 격차가 매우 커 가장 비판적인 항목으로 분석됨
- ☑ 한편, '내년 총선'에 대한 여자 2030세대의 응답이 특이한데, 다른 항목과 달리 '적게 보도되는 편'으로 평가함
 - : 이는 '내년 총선'에 대한 여자 2030세대의 개인적 관심도가 낮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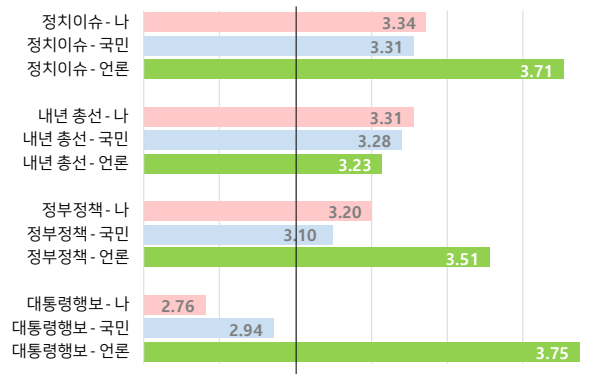
□ 60대이상, 언론보도에 가장 비판적

- 4060세대 역시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3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 '많이 보도하는 편'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60대이상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60대이상은 모든 항목에 걸쳐, 성/연령층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세로 검은 선은 '적절한 수준'(3점) 기준선임
- 또한 4060세대도 '정치 이슈'와 '대통령 행보와 말'을 특히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평가함
 - '대통령 행보와 말'에 대한 점수는 2030세대도 높지만, 4060세대의 점수는 더욱 높은 점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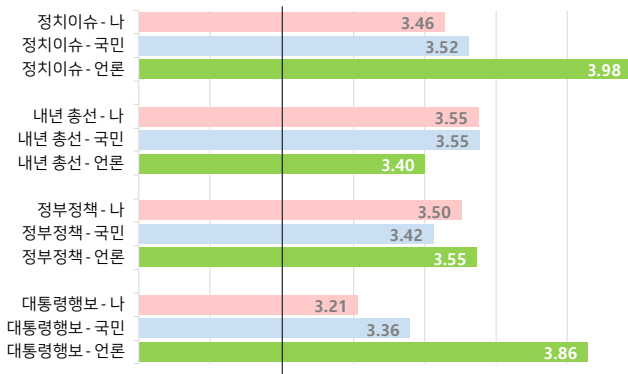
40대, 언론보도 평가 (2023.08.13조사,단위:점)



50대, 언론보도 평가 (2023.08.13조사,단위:점)



60대이상, 언론보도 평가 (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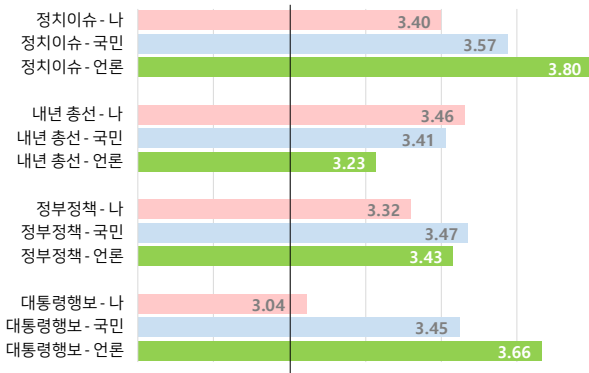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성/연령별 정치관련 언론 보도 평가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성/연령이 '많이 보도하는 편'으로 생각함
 - : 객관적으로도 정치관련 언론 보도는 '중편(종합보도편성체널)' 출범 이후 양적으로 팽창함
 - : 이러한 언론의 정치관련 보도 급증에 대해 국민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 특히 2030세대보다 4060세대의 비판적 태도가 주목됨
 - : 전반적으로 2030세대의 언론보도 평가 점수보다 4060세대의 점수가 높고, 특히 60대이상의 점수가 가장 높음
 - : 즉, 정치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적 태도가 4060세대에서 강하고, 60대 이상이 가장 비판적임
 - : 정치 관련 언론보도의 주요 소비층으로 알려진 4060세대가 정작 언론 보도에 비판적인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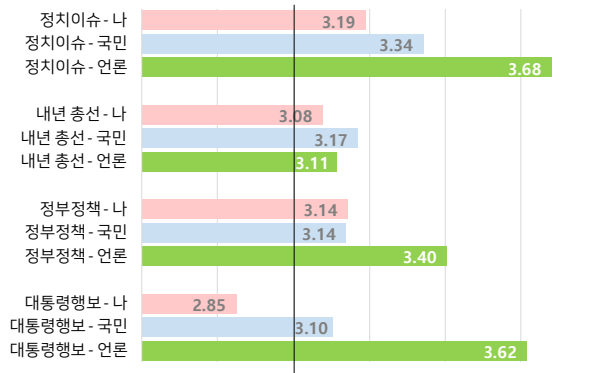
□ 보수층 '정치 이슈', 진보층 '대통령' 보도 많다고 평가

- 이념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이념층이 '적절한 수준'(3점) 이상을 기록해 '많이 보도하는 편'으로 평가함
 - 아래 그림에서 세로 검은 선은 '적절한 수준'(3점) 기준선임
- 전반적으로 보수층은 '정치 이슈' 보도가 많다고 평가하고, 진보층은 '대통령 행보와 말'을 많이 보도한다고 평가함
 - 보수층, '정치이슈' 언론보도 평점 3.80점 / '대통령 행보와 말' 평점 3.66점
 - 진보층, '정치이슈' 언론보도 평점 3.51점 / '대통령 행보와 말' 평점 3.6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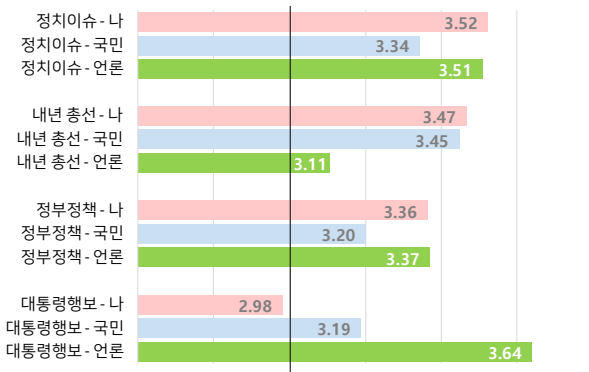
보수층, 언론보도 평가 (2023.08.13조사,단위:점)



중도층, 언론보도 평가 (2023.08.13조사,단위:점)



진보층, 언론보도 평가 (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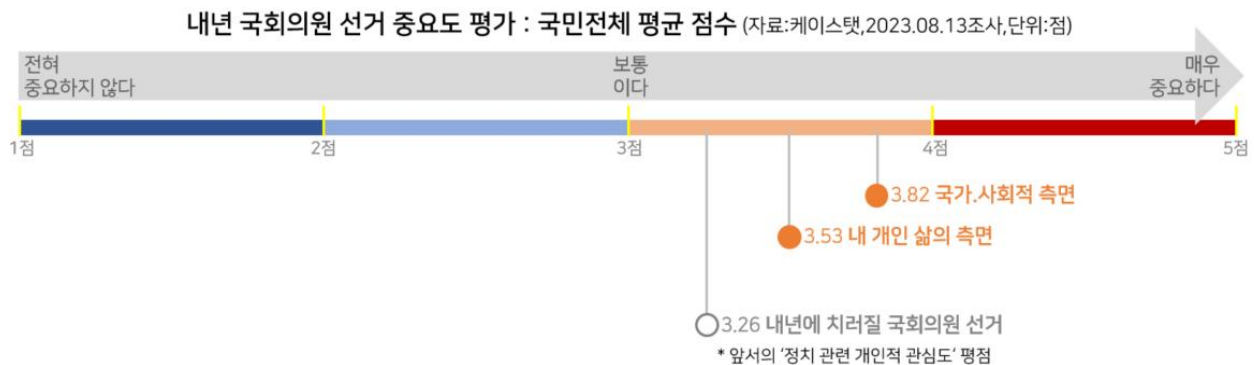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최근 여론은 우리나라 방송지형이 '진보 편향적'이라며, 보수와 진보가 균형 잡힌 언론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골적인 언론자유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 중임
 - : 이러한 상황을 돌아볼 때, 보수층이 '각종 정치 이슈' 보도에 가장 비판적인 것은 정치 이슈 보도가 '진보 편향적'으로 이뤄진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임
- ☑ 한편, 진보층이 '대통령 행보와 말' 보도에 가장 비판적인 것은 이른바 '보수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말과 행보가 긍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비판적 의식의 결과로 판단됨
- ☑ 이렇듯 정치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보수층과 진보층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지만, 지나치게 많이 보도한다는 문제의식은 동일함
 - : 우리사회의 '정치 과잉' 현상에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은 이념을 떠나 같은 생각으로 보임

▶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생각

□ 국회의원 선거, 개인적·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

- 우리 국민들은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내 개인 삶의 측면’에서 중요도는 3.53점이고, ‘국가·사회적 측면’ 중요도는 이보다 높은 3.82점을 기록함
 -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생님께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각각의 측면에서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후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 응답토록 한 결과임
- 앞서의 ‘정치 관련 개인적 관심도’ 중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3.26점)와 비교하면 중요도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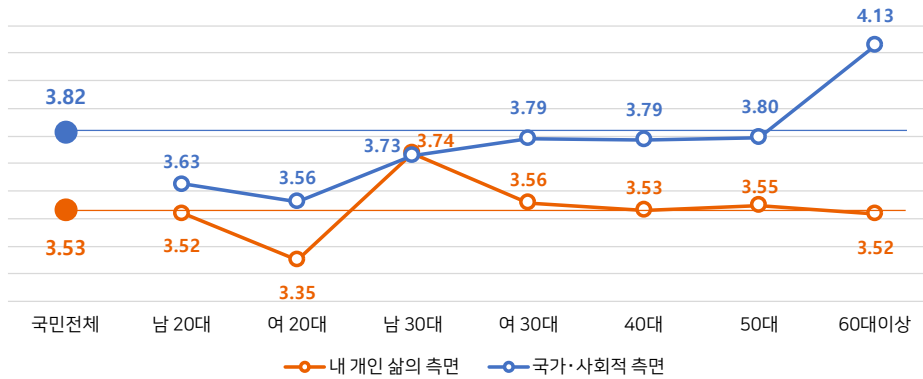
Kstat Point

- ☑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함
 - : 이는 앞서 ‘내년 총선’ 관심도(3.26점)보다 높은 점수로, 관심도보다 높은 중요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내 개인 삶의 측면’보다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볼 때, 국민적 기대감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임
 - : 이와 관련, 국민들은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함
 - : 우리사회의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결 정치세력을 질문한 결과, 제시한 문제 전체에 걸쳐 ‘모두 기대 안된다’는 의견이 5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기대감이 절대적으로 낮음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80호 『우리사회 주요 문제와 문제해결 기대 정치세력』 참고
- ☑ 이렇듯 낮은 기대감 속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어느정도 투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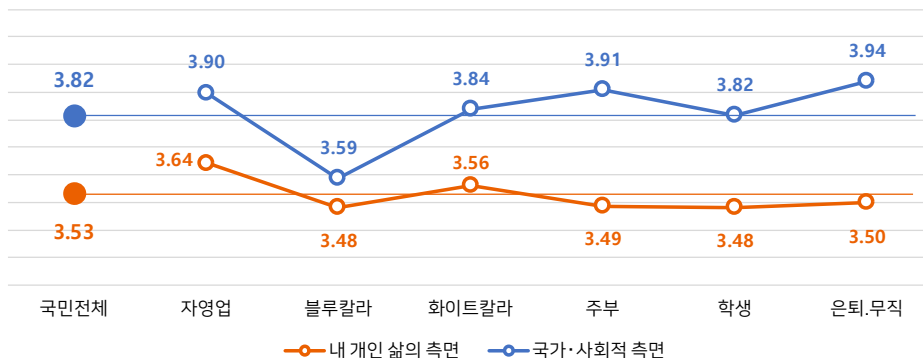
□ 총선 관심도, 60대이상과 은퇴.무직자 높아

- 내년 총선 관심도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연령별로 '국가·사회적 측면'에서의 중요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례해 높아짐
 - 여자 20대가 3.56점으로 가장 낮고, 60대이상 4.13점으로 가장 높음
 - 또한 60대이상을 제외한 다른 성/연령층의 중요도는 국민전체 3.82점보다 낮음
- 성/연령별 '내 개인 삶의 측면'에서의 중요도는 여자 20대가 가장 낮고(3.35점), 남자 30대가 가장 높음(3.74점)
- 직업별 '국가·사회적 측면' 중요도는 자영업자와 은퇴.무직자가 높고(각각 3.90점, 3.94점), 블루칼라 종사자가 가장 낮음(3.59점)
- 또한 직업별 '내 개인 삶의 측면' 중요도는 자영업자가 가장 높고(3.64점), 학생이 가장 낮음(3.48점)

성/연령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중요도 평가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점)



직업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중요도 평가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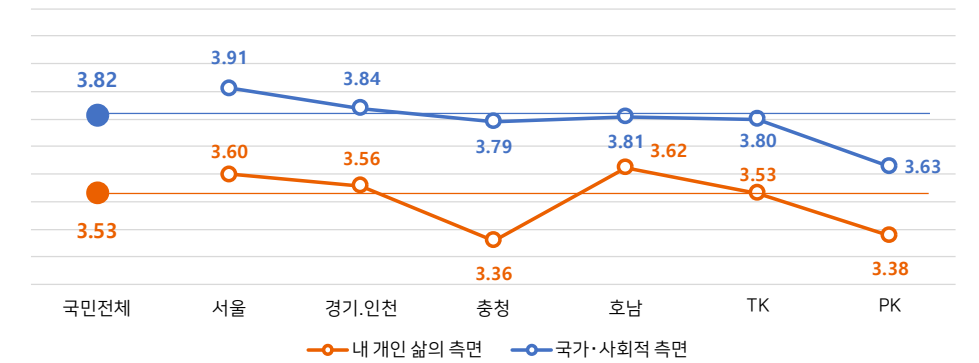
Kstat Point

- ☑ 내년 총선 중요도를 성/연령별과 직업별로 살펴봐도 국민전체와 마찬가지로 '내 개인 삶의 측면'보다 '국가·사회적 측면'의 중요도가 높음
 - : 즉,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 임할 때, 국가·사회적 측면에 주목해 투표할 것으로 보임
- ☑ 이 지점에서 '국가·사회적 측면' 중요도가 월등히 높은 60대이상 연령층의 투표 참여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 예외적으로 남자 30대는 '내 개인 삶의 측면'과 '국가·사회적 측면'이 비슷해, 투표 참여가 유동적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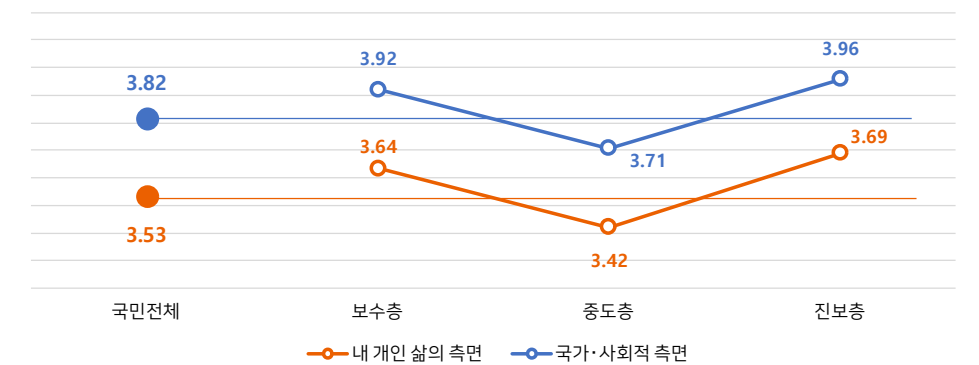
□ 총선 관심도, 서울 높고 PK 낮아

- 내년 총선 관심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가·사회적 측면'에서의 중요도는 서울이 가장 높고(3.91점), PK가 가장 낮음(3.63점)
 - 다른 지역은 대부분 국민전체(3.82점)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 지역별 '내 개인 삶의 측면'에서의 중요도는 서울과 호남이 높고(각각 3.60점, 3.62점), 충청과 PK는 낮음(각각 3.36점, 3.38점)
- 이념별로는 '국가·사회적 측면' 및 '내 개인 삶의 측면' 모두 보수층과 진보층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음
 - 중도층은 두 측면 모두 국민 전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함

지역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중요도 평가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점)



이념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중요도 평가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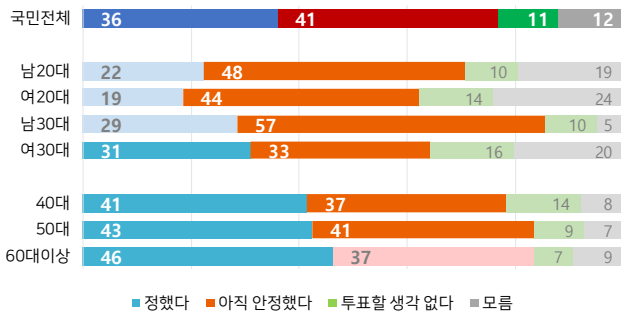
Kstat Point

- ☑ 내년 총선 중요도는 지역별, 이념별 모두 '내 개인 삶의 측면'보다 '국가·사회적 측면'의 중요도가 높음
 - : 앞서 성/연령별 및 직업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은 국가·사회적 측면에 주목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됨
- ☑ 지역별 응답에서 주목되는 지역은 서울과 PK지역임
 - : 서울은 '국가·사회적 측면'과 '내 개인 삶의 측면'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 : 이에 비해 PK는 두 측면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 투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다분함
- ☑ 한편, 이념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이 두 영역 모두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중도층은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을 볼 때, 이른바 '진영 대결'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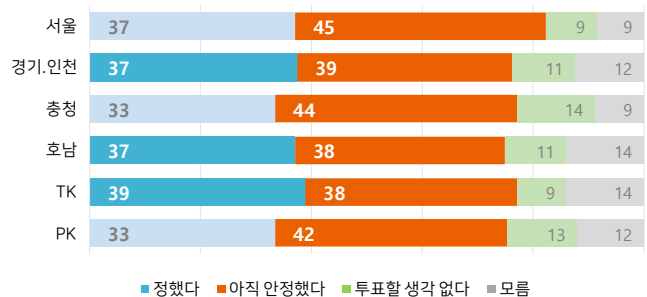
□ 총선 투표 정당, '정했다' 36% vs '안정했다' 41%

- 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아직 안정했다'가 41%로 가장 높고, '정했다'는 응답도 3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투표할 생각이 없다' 11%, '모르겠다' 12%로 조사됨
 - "선생님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정하셨어요, 안정하셨어요?"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정했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60대이상 △은퇴.무직 △보수층, 진보층 등임
- '아직 안정했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녀 20대, 남자 30대 △서울, 충청, PK △블루칼라, 학생 △600만원 미만 소득층 △중도층 등임
- '정했다'와 '아직 안정했다'는 응답이 팽팽한 계층은 △여자 30대 △4050세대 △경기.인천, 호남, TK △자영업, 화이트칼라, 주부 △600만원이상 고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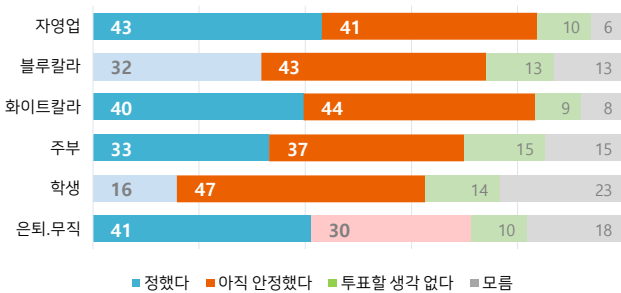
내년 총선 투표 정당 결정 여부 : 국민전체,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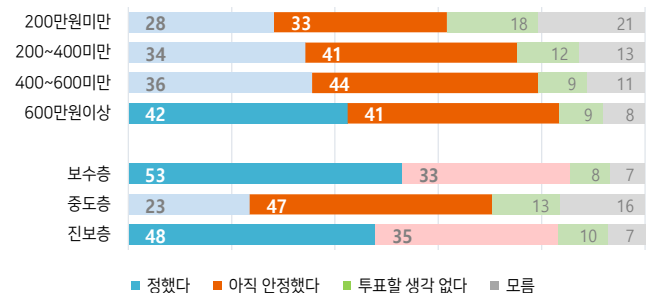
내년 총선 투표 정당 결정 여부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



내년 총선 투표 정당 결정 여부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



내년 총선 투표 정당 결정 여부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8.13조사,단위:%)



Kstat Point

- ☑ 내년 총선이 8개월 남은 시점에서 국민 중 36%가 투표할 정당을 '정했다'고 응답함
 - : 향후 다양한 정치 일정이 있고,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정했다'는 응답이 36%인 것은 높은 수치임
 - : '정했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이 이념적으로 보수층과 진보층인 것을 볼 때, 내년 총선이 '진영 대결' 구도 속에 치러지면서 정치흐름 및 후보와 무관하게 투표할 것으로 예상됨
- ☑ 이렇게 볼 때 아직 '진영 대결' 구도에 참여하지 않은 계층의 표심이 중요한데, 이들은 남녀 20대와 남자 30대임
 - :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인 이들이 어느 진영에 참여할 것인지에 따라 투표 결과가 좌우될 것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82호, 83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82호와 83호는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해 각각 9월 7일(목요일), 21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9월 사회지표는 9월 14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